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근래 광주와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설치작가 S씨(42)는 한 때 신용불량자였다. 현재는 가까스로 신용을 추스린 상태이지만 그간 겪어왔던 시간들을 '책으로 쓰면 한 트럭으로도 부족할' 만큼 고통의 나날이었다. 흥청망청 인생을 즐기다 바다까지 떨어졌으면 덜 억울할 것이다. 그를 신용불량이라는 구렁텅이에 빠뜨린 장본인은 다른 아닌 광주비엔날레였기 때문이다.

는 여기저기서 거금 4천여만원을 변통해 전시관 천장에 270개의 자전거를 매단 대작을 설치했다.

그러나 황홀한 비엔날레와의 항해도 잠시, 비엔날레 폐막 직후 IMF라는 예기치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재단 직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변한 재교육을 받지 못한 채 정체가 돼 있다.

그나마 한번이라도 비엔날레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작가들은 행운아들이다. 작가들을 리스트업하는 총감독과 전시인력이 지역 미술계에 어두운 외지인들이나 보니 광주작가가 비엔날레 티켓을 쥐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물론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작가들이 많지 않은 지역의 한계를 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주 비엔날레가 총감독 개인의 국제적 사교를 위한 파티, '재주는 곰이 낚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 비엔날레, 북경 아트페어 등 국제미술 이벤트를 통해 위태민권, 장샤오강 등 훌륭한 자국 작가들을 속속 현대미술시장의 블루칩으로 상징시킨 중국의 발빠른 행보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우리들의 축제'로 거듭 나아

'2006 광주비엔날레'(9월8~11월11일) 개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제작비 지원을 둘러싼 일부 작가들과의 계약이 난항을 겪는데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수석 프로그래머가 중도 하차 하는 등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행사의 내실을 위해서라면 이런 진통증은 차라리 생산적이다.

그러나 지역작가발굴과 인재양성을 소홀히 한 대가로, 매년 '광주'가 배제된 제외지인들로 새판을 짜야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은 소모적이다 못해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광주 비엔날레가 문화수도 광주를 견인해갈 중추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들의 축제'로 거듭나려면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책무에 눈을 돌려야 한다. 언제까지 '밑빠진 독'으로 남아있을 건가.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그들만의 잔치' 이제 끝내자

못한 암초를 만난 그는 살인적인 대출금 이자를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자초했다. 이후 대출금과 이자를 갚느라 수년간 본업인 창작은 뒷전인 채 막노동판을 전전해야 했다.

민까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소위 이 지역의 대표 문화브랜드라는 광주 비엔날레의 이면이다. 광주 비엔날레는 올해로 창설 11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아직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작가발굴과 인재양성에 소홀한 재단의 직무유기가 크다.

매년 행사를 치를 때마다 80억~100억 원이던 거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작가와

문제는 문화도시의 핵심인프라로서 작가와 인재양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재단의 안일함이다. 비엔날레가 폐막되면 전시팀원들의 계약만료와 함께(비엔날레를 매개로 한)국제 인맥과 노하우도 동시에 소멸된다. 막대한 해외출장 경비를 지출해가며 공들여 쌓은 네트워크가 총감독을 비롯한 전시인력의 임기가 끝나면 '그들의 자산'으로 귀속될 뿐 재단에 축적되지 않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제인맥을 지렛대로 비엔날레 출신의 광주 작가들을 국내외 무대에 '피우는' 후속(follow-up)프로그램이 있을지 만무하다

인재양성에 소홀한 비엔날레

하지만 그는 재단으로부터 "비엔날레호(號)에 승선한 것만으로 더할 수 없는 '영광'일 터이니 작품 제작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돈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놓칠 수 없었던 그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높은 투표율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한다

오늘은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을 맡을 일꾼들과 민의를 대변할 지방의원들을 뽑는 날이다. 국가는 오늘을 임시공휴일로까지 정하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투표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역대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지도 모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격정스런 예측이 나왔다. 선관위가 조사한 바대로 투표율 40%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고까지 할만한 일이다.

이래선 안된다.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선거를 통해 뽑힌 풀뿌리 일꾼들의 대표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당선자들로 하여금 주민경시풍조에 빠지게 만든다. 낮은 투표율 자체가 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해 당선자들의 전횡(專橫)과 나태(懶怠)를 유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정치권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방선

거를 자치일꾼을 뽑는 선거로 보지 않고 일찌기 자기편 사람들을 장관직에 기용했다가 선거판에 '투하'시키는 등 중앙정치의 세력싸움으로 판을 이끌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측시켰다. 그 결과 빅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하곤 선거 초반에 판세가 갈라 유권자들이 '당연히 아무게가 당선 아니냐'며 투표를 외면케하는 무관심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는 유권자들이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공천제가 부활, 적용된다 사상 처음으로 유급제가 적용되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챙겨보는 성의를 가져야 한다. 나와 내 가족부터 지방선거에 표를 행사할때 비로소 주인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김재철 여수엑스포 유치위원장에 기대한다

여수 세계박람회 민간 중앙유치위원회가 어제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여수 엑스포 중앙유치위원회는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학계 인사들로 3~4명의 부회장과 9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민간 중앙유치위원회 구성으로 2012 여수엑스포 유치 활동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미 3개월전에 구성된 정부유치위원회에 비해 민간중앙유치유치 구성이 늦어지면서 득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간 중앙유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엑스포 회원국을 대상으로 민간 차원의 득표활동을 벌이는 한편 국내에서는 엑스포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공식외교 채널 못지 않게 민간외교 사절의 막후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과거 올림픽이나 국제 대회 유치 과정에서 이

미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김재철 유치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 지역 강진 출신인 김 위원장은 변변한 어선 한 척 없었던 국내 원양업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켰으며 최근까지 무역협회를 맡아 세계시장 개척의 주역으로 활동해 왔다. 여수 엑스포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다. 평생 바다를 무대로 기업 활동에 전념해온 김유치위원장이말로 여수 엑스포 주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닐 수 없다.

여수 엑스포 유치 경쟁은 이제부터다. 내년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심사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02년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교통·관광 인프라는 미흡할 수준이다. 낮은 인지도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전과 함께 민간유치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기고

박홍근



은펜칼럼

월드컵 시즌이다. 언론마다, 거리마다 붉은 물결로 가득하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를 생각해 본다.

십은 그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외국과 지난 12년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명장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에서 단, 1 승조차 없었던 대한민국 팀을 4강에 올려놓은 기적 같은 일을 일구어낸 주인공이다.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인구 400만명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작은 도시로 일컫게 했고, 세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국왕은 인구 130만명에 국토면적은 서울시 보다 적은 도시를 중동경제의 허브로 자리를 굳히게 하고 있다.

이는 한사람의 리더가 조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예다.(홍 그라운드)의 이점은 접어두고..)

브라질 파라나 주의 꾸리찌바시는 자이메르 레르네르 시장의 창조적 리더십에 의해 1950년대 이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지속되던 꾸리찌바를 '지구상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히딩크 리더십의 핵심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며, 자신의 축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선

리더십과 도시경쟁력

수들과 공통된 가치를 공유한 것이다. 또한 선진 축구의 본 고장인 유럽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도입, 적극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여 한국축구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로 탈바꿈 시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 발전의 중추역할과 촉매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좌우한다.

감독(단체장)이 있고 팀(행정조직), 선수(공무원), 전술과 전략(운영전략) 등이 필요하다. 승자(발전하는 도시)와 패자(침체하는 도시)가 존재하고 이기기 위한 상대의 전력분석(지역의 잠재력, 지역현안)과 대처방안(비전제시), 팀워크 조성, 훈련(혁신), 교육 등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선출될 것인가는 지자체 주민에게 최대의 관심사다.

그러다보니 현재 고등학교에서 독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10% 수준에 불

정치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패가, 경제·사회적으로는 도시의 변명과 인간다운 삶의 지속 여부가 단체장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이젠, 우리 도시의 경쟁력은 단체장의 리더십만큼 큰다는 사실을 서로 기억해야 했다.

〈포유건축사사무소 건축사·2004년 12월 수장사〉

제2외국어 홀대, 국가경쟁력 약화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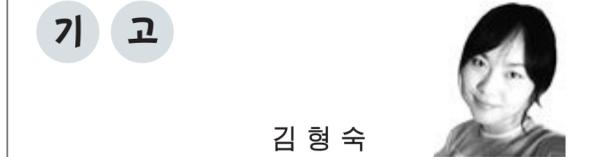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이 홀대받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7년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다며 제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제2외국어에 아랍어 등을 추가했지만 학생선택에 따라 개설되는 제2외국어는 일본어와 중국어에 집중됐다.

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어와 아랍어가 단일교과목으로 개설된 곳은 아예 없다고 한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영역에 치중하면서 제2외국어에 소홀히 한다면 국가경쟁력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김형숙

손목씨는 매일 저녁 담배를 피우기 위해 억지운동을 시작했다. 늦게 되어서야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음식을 쓰레기를 들고 나가 아내의 눈을 피해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 결혼 전 아내와 했던 금연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자신의 금연을 믿고 있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HHA) 발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지나해 3월부터 전국의 246개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도 하루 수십 명의 흡연자가 찾는다. 흡연자들은 첫째, 담배 때문에 몸이 나빠지는 것 같고 둘째, 가족들이 원하는데다 셋째 담배값도 오르고 마지막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

2년 가까이 금연상담사로써 흡연자들을 상담하며 금연하는 사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등 다양한 모습을 많이 접했다. 흡심증, 뇌졸중 등으로 흡연만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담배를 버리지 못한 흡연자도 있었다.

특히 흡연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치명적 요소다. 간접흡연도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태아, 영유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폐암과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물론 태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돌연사까지 일으키는 등 직접흡연과 다른없는 피해를 유발한다는 미국환경위해평가국(OE-

금연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실패자들의 모습을 예로 든건 실패자가 성공자보다 많고, 지금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는 독자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에게 묻고 싶다. 담배로 인

5·31은 선거도, 금연도 하는 날

에 담배를 끊겠다고 한다.

해 기본이 좌지우지 되어 가정·직장·사회 회의 금연 열풍에 역행하는 '담배의 노력'로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마는 게 요즘 현실이다. 그러나 명예와 부를 만끽할 만큼 이뤄 놓은 뒤 '건강'을 잃어버리다면 평생 노력의 끝자락 되고 만다.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없다면 이미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예견되어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흡연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치명적 요소다. 간접흡연도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태아, 영유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폐암과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물론 태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돌연사까지 일으키는 등 직접흡연과 다른없는 피해를 유발한다는 미국환경위해평가국(OE-

5월 31일은 지방선거일이면서 세계 보건기구(WHO)가 '연기 없는 사회(Smoke free society)'조성을 목표로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문화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될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경적소리, 과속으로 달려가는 차들, 도로 양쪽에 서 있는 주차차량들 여기에다 요란한 질주로 나오는 소음은 이미 소음측정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또한 OECD 가입국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

5월 31일부터 그동안 미뤘었던 금연을 시작해보자! 아직 2006년은 7개월이나 남아있으므로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지검도록 따라다니는 흡연의 굴레를 단칼히 벗어던지고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동구보건소 금연상담사〉

안전한 도로 교통문화 주민 스스로 확립할 때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보는 경제성장이 말해주듯 한국의 조산, 전자, 통신, 자동차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으며 국가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문화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될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경적소리, 과속으로 달려가는 차들, 도로 양쪽에 서 있는 주차차량들 여기에다 요란한 질주로 나오는 소음은 이미 소음측정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또한 OECD 가입국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

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통문화의 현실인 것이다.

교통문화는 우리의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문화가 무질서하고 혼란하다면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사회를 삶의 질이 높은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

나라의 살림을 키우는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문화를 우리 스스로 확립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정태희·광주동부경찰서 교통과

無等鼓

최근 미국에서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3대가 한 집에 모여사는 대가족 붐이 일고 있다는 외신이 눈길을 끈다. 한 지방에서 3대 이상이 사는 가구가 미 통계청 마지막 센서스가 실시된 지난 2000년 420만 가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전체 미국 가구의 4%에 불과하지만 1990년에 비하면 38%나 증가한 수준. 이런 추세는 향후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얼마 전 통계청은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8로 떨어졌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로 전년의 1.16명에 비해 0.08명 준 수치다. 전 세계 평균인 2.6명과 미국의 2.05명,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美的 대가족 붐



대가족 증가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우선 꼽힌다. 집값이 급등해 임차료나 구입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집을 찾게 된다. 집값이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주에 대가족 가구가 많은 점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녀양육비 절감, 아시아 이민자 급증 등도 한 요인이다.

교보문고가 최근 낸 'UN 미래보고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선랄하게 보여준다. 4천600만에 이르는 현 인구는 2050년 3천만명, 200년후에는 500만명 그리고 2800년에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좀 특이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들이 자라면서 자녀의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경향도 작용한다는 점이다.

미국인이 숨을 거두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예측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눈이 중국과 인도로 쏠리는 것은 두 나라 모두 인구 10억이 넘는 거대 시장이라는 매력 때문이다.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한 요즘이다.

8/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